

광주·전남 '월드클래스 300 기업' 8곳으로

호원·삼원산업사 합류...산자부 신규 41곳 선정 300곳 확정 5년간 연구비·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기업 성장 뒷받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굴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 최종명단에 지역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월드클래스 300 기업 41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선정서를 수여, 당초 목표한 300개사 선정에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된 기업은 ㈜호원과 ㈜삼원산업사 등 2개사다.

자동차 차체부품 모듈 전문기업인 ㈜호원은 터키에 설립한 해외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생산품의 55%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포드사로부터 공급자 품질인정 'Q1'을 획득해 포드사의 대·소형 자동차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향후 유럽·미국 등으로 직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원산업사는 알루미늄 열교환기, 전선 등 비철금속 부품소재 전문기업이다. 대기업 해외 이전에 따른 위기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가전제품에 특화된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용 전선 분야에도 투자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성장사다리를 구축, 기업의 선순환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259개 기업을 선정 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선정을 통해 목표였던 300개사 선정이 최종 완료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300개사 명단에 오른 기업은 ㈜호원과 ㈜삼원산업사를 비롯한, ㈜이솔루션(2012년), ㈜파루(2015년), ㈜케이씨(2015년), 남도금형(2016년), ㈜성미이노텍(2017년), 지오씨(2017년) 등 총 8개사다.

선정된 기업들에겐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5년간 연 15억원 이내)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5년간 연 7500만원) 비롯, 금융·인력·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실제, 선정 기업들은 2011~2016년동안 R&D·수출·금융 등 지원을 받아 매출액 15.8%, 수출 17.4%, 고용 14.9%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된 과제 46개 중 3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성공률 76.1%)해 총 1.8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월드클래스 300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상당수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대표적인 기업 육성 프로젝트다"며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8.54 (-17.57)	금리 (국고채 3년) 2.31% (0.00)
↑ 코스닥 862.94 (+4.24)	↑ 환율 (USD) 1037.80원 (+5.80)



안전성 강화 기아 '더 뉴 K5 하이브리드'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등 첨단 사양 탑재

기아자동차는 디자인을 바꾸고 안전·편의성을 높인 '더 뉴 K5 하이브리드'를 15일 출시했다.

더 뉴 K5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가 18.0km/ℓ (16인치 타이어 기준)로 기존 모델(17.5km/ℓ) 대비 연비 효율성이 높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연료 소비 없이 전기로만 운행 가능한 전기차(EV) 모드의 효율도 개선됐다.

디자인은 올해 초 출시된 '더 뉴 K5'의 요소를 적용, 전면부에는 가로형 LED 이어아웃의 LED 안개등과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프론트엔드 헤드램프를 넣었고 후면부는 LED 리어컴퍼램프를 적용했다. 안전성상으로는 고속도로 사고 예방·운전자 피로를 줄여주는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보조(HDA)와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에어벤드 에어백,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DRM)를 갖췄다.

판매가격(세제 혜택 후)은 ▲프레스티지 2890만원 ▲노블레스 3095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55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농협은행 전남본부 10억원 출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유혜근)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진)은 15일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비용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또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재단과 맺은 '무방문 신용보증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보증 신청서류 등 보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신해 접수한다. 업무로 바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유혜근 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유가 상승에 수입물가도 '경중'

지난달 한달새 1.2%...7개월만에 최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수입물가지수는 85.03(2010=100·원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2%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상승률은 작년 9월(1.8%) 이후 최대였다.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를 밀어 올린 주 요

인이었다. 월평균 두바이유는 3월 배럴당 62.74달러에서 지난달 68.27달러로 8.8%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가 4.1% 올랐다. 그중 원유가 8.4%, 천연가스(LNG)가 3.4% 각각 상승했다. 중간재도 석탄 및 석유제품 위주로 0.4% 올랐다. 중간재 가운데에는 나프타(원유를 증류할 때 생기는 광물성 휘발유·5.2%), 벵치C유(6.0%)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수출물가지수는 83.85로 한 달 전 수준



과 같았다. 수출물가 상승률은 1월 -0.5%, 2월 1.0%, 3월 -1.4%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농림수산물 수출물가가 0.8% 하락했고 공산품은 0.1%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TV용 액정표시장치(LCD·-3.5%), 모니터용 LCD(-1.1%) 등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인 LCD 수출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플래시메모리도 저가 품목이 시장에 나오며 5.3% 하락했다. 반면 경우(7.2%), 휘발유(5.2%) 등 석탄 및 석유제품 품목은 수출물가가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실제 계약할 때 쓰인 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한 달 전보다 1.7%, 수출물가는 0.5% 각각 올랐다.

/연인합뉴스

에어서울 15개 노선 무제한 탑승

동남아·대양주 패스 항공권 판매...내달~7월 15일 한정

전 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이 나왔다.

에어서울은 자사의 모든 노선을 45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민트패스(Mint Pass) M' 항공권을 오는 21일까지 판매한다.

에어서울은 현재 도쿄·오사카·히로시마·나가사키 등 일본 10개 도시를 포함해 홍콩, 다낭, 코타키나발루, 씨엠펜, 캄 등 총 15개 동남아·대양주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민트패스 M 항공권은 도착 요일 제한에 따라 3가지 종류로 판매한다.

M1(29만9000원) 항공권은 일·월요일 도착이 제한되고 M2(39만9000원) 항공권은 일·월요일 도착 1회만 허용된다. M3(49만9000원) 항공권은 도착 요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탑승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다만, 공휴일인 6월 6일과 13일 이틀은 이용이 제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라운지 확장

아시아나항공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라운지를 90석 규모로 확장, 새로 개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333㎡로 기존(296㎡)보다 넓어졌고 좌석은 90석으로 늘었다.

아시아나는 새 라운지 주제를 '아늑한

서거에서의 휴식'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인테리어를 새로 꾸몄다. 라운지에서 생맥주, 수입 치즈 등을 제공하는 등 식음료·베이커리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라운지 위치는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 외부에서 출국장 내부 4층으로 이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책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100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김**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